

덕구의 방주

- 시나리오 -

제작 아이피박스미디어
글 갱수

이 작품은...

이 이야기는 창세기 6~8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모티브가 되었다.
성경에는 노아에게 대 재앙을 앞두고 방주를 만들어 재앙에서 살아 남으라 하셨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재앙에서 가족, 동, 식물들과 살아 남았다.

그리고 90년대 '휴거'라는 재앙이 올 것이고 그 때 믿음이 있는 몇 몇만이 살아남아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종교에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이 빠져 들었다. 하지만 '휴거'는 오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 지구는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40도가 넘는 기온, 태풍 등. 빙하가 녹으며 바다의 평균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구의 땅은 바다 밑으로 잠긴다고 수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헐리웃 영화 '2012'는 모든 육지가 바다에 잠긴다는 설정으로 전 세계인들이 살아 남기 위해 거대한 잠수함을 만들어 살아 남는 재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금 어디선가? 이러한 문제를 종교적으로 접근한 사이비 종교가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사기전과자가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믿음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점을 이용한 사이비 종교. 그 종교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것이다. 신도들의 가장 강하지만 어쩌면 가장 약한 것이 믿음! 그것을 이용한 신흥 사이비 종교. 방주교에 대한 이야기!!!

프로로그

- 서울 강남 한 복판에, 태풍으로 인한 비 피해로 차들이 물에 잠겨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 지방의 마을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주민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소들과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 물에 잠긴 차를 손으로 밀고 가는 도심 사람들.
- 고무 보트를 타고 지붕 위로 피해 있는 주민들을 구조하러 가는 군인들.
- 줄기차게 내리는 비 속에서 하늘을 비추는 카메라.

- 자료 화면으로 써도 됨 -

#1. 교도소. 낮

카메라 다시 내려오면.

창살 사이로 보이는 덕구(50대)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 밖에 내리는 비를 보고 있다.

TV 소리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 뒤에는 평균 2도 이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이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미소 짓는 덕구.

#2. 강남도로. 낮

퍼붓는 비를 맞으며 강남의 한 건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차량들.

#3. 덕구의 성전 사무실 안. 낮

덕구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럭셔리한 사무실 쇼파에 앉아 있다.

비서 (20대 후반 녀) 준비 다 됐습니다.

덕구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선다.

죄수복을 입은 덕구와는 완전 다른 모습.

만족한 듯. 미소를 띄고, 넥타이를 한번 정리하고 밖으로 나간다.

#4. 덕구의 성전 안. 낮

대형 교회 예배당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차 있다.
덕구가 교단에 오르자 '주여! 주여!'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덕구 왜 이제야 여기에 왔는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별은 시작이 되었다.

'주여 용서 하소서 주여' 등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덕구 이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가?
신도들 네. 주여! 주여
덕구 조용! 이제 조용히 하고 내 얘기를 들으라.

조용해지는 신도들.

덕구 지금 밖에 내리는 것은 비가 아니라 주님의 눈물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을 때도 주님은 울지 않으셨
 습니다. 그럼 지금 주님은 왜 눈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신도들 주여! 주여!
덕구 조용하세요! 이제 주님의 눈물이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것을 주셨습니다.

긴장과 기대에 찬 신도들의 모습.
덕구. 뒤로 돌아 두 손을 펼치면.
커튼이 거치며 화면에 웅장한 잠수함이 나타난다.

신도들 주여, 주여!

함성이 내부에 울려 퍼진다.
서서히 암전.

타이틀

- 덕구의 방주 - 뜯다.

#5. 교도소 예배당 안. 낮

죄수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죄수들 속 덕구가 있다.

목사님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퇴폐한 인간들을 벌하시기 위해 홍수라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노아를 통해 이 땅의 살아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목사님의 ‘아멘’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죄수들.

#6. 덕구의 방 안. 저녁

죄수1 난 사회에 나가면 꼭 교회에 나갈 거야.

죄수2 지랄하네. 니가 껍이나 그러것다.

민호 왜? 예배 끝나면 밥 주니까.

죄수1 아니라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주님이 계신 거 같다니까.

민호 예라이, 아서라 있긴 뭐가 있노 밥은 절에 가도 주니까 절에도 가라.

다른 죄수들이 떠들고 있는 사이 묵묵히 뭔가를 적고 있는 덕구.

민호 형님. 또 뭘 그렇게 적으십니까. 그러면 특별사면이라도 된답니까.

덕구 니들이 뭘 알겠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자 한자 적다 보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알겠냐? 이 무식한 것들아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덕구.

#7. 동 장소. 저녁

늦은 밤까지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덕구 창 밖에는 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덕구 놀라서 창을 보면 유리차이 깨지면서 비가 들이치기 시작한다. 비가 덕구의 얼굴에 퍼붓는다. 덕구 성경책에 비가 쏟아지자 몸으로 성경책을 덮는다. 계속 내리는 비에 안정적인 호흡이 되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성경책을 감싸는데 보이는 성경구절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덕구의 귀에 울리는 울림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호흡이 더 거칠어진다. 덕구 마치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개를 들며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가위에 눌린 듯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는 덕구.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다 좌우를 보면 잠들어 있는 다른 죄수들.

#8. 교도소 밖. 새벽

출소 하는 덕구(일상복 차림)와 사람들.
덕구 새벽 공기에 심호흡을 크게 한다.

#9. 시외버스 터미널. 오전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 덕구.

#10. 버스 안. 오전

덕구, 자리 앉아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는다.

덕구 주여. 제가 지금 주님을 뵈러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지금 그 곳으로 가
 니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출발하는 시외버스.

#11. 서해의 작은 포구. 낮

작은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서 있는 덕구(좀 유행이 지난 정장 차림).

#12. 복덕방. 낮

복덕방 사장 어서오슈.

 덕구가 안으로 들어온다.

복덕방 사장 그래. 뭘 일로?

덕구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복덕방에 볼 일이 뭐가 있어서 왔겠습니까.

복덕방 사장 그렇지. 요즘 귀어들 한다고 많이들 오긴 합디다. 그래도 막상 계약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 차라리 그게 나아. 어촌 일이 쉼게 아니거든.

덕구 전 어떨 거 같으세요?

복덕방 사장 내가 복덕방에 돛자리 깔았나? 그걸 어찌 알거슈. 강 힘들게 보기만 할 거면 혼자 돌아보고 빈 집 있으면 사진 찍어서 다시 오슈.

덕구 같이 보러 안 가시구요?

복덕방 사장 걸으면 다리 아프고 차 타면 기름 값에.. 사진 보면 다 아니께. 그렇게 하슈. 이것이.. 그 뭐시냐? 잉. 나의 노하우.

덕구 (잠시 당황) 그래도...

복덕방 사장 허. 참 말 많구먼. 같이 갔다가 손님이 집 계약 안 하면 난.

덕구 이거 마을 인심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복덕방 사장 인심이 밥 먹여주간디. 사진 보면 딱딱 가격 나오니께 그렇게 허시자구.

덕구 네.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인사하고 나가는 덕구.

복덕방 사장,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놓는다.

#13. 마을. 오후

덕구. 마을 돌아다니며 빈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들 사진을 찍는다.

덕구 이거 생각보다 빈 집이 많네. 장사가 쉽지 않겠는데?

덕구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본 할머니(70대)

김씨 할머니 귀어 하러 서울서 온겨?

덕구 (밝은 미소로) 네. 할머니.

김씨 할머니 진짜 할 겨?

덕구 그래 불러구요.

김씨 할머니 그려? 복덕방 사장한테 물어바야것네.

덕구 네? 복덕방이요. 거긴 갔다가 왔습니다.

김씨 할머니 아니. 귀어를 할 건지? 강 둘러보고 갈건지.

덕구 네?

김씨 할머니 일 보고 갑시당.

가는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는 할머니.

#14. 복덕방. 오후

문 열고 들어오는 김씨 할머니.

복덕방 사장 아이구 뭘 일이래요?

김씨 할머니 (쇼파에 앉으며) 아니. 저그..
복덕방 사장 아. 귀어.
김씨 할머니 잉.

김씨 할머니, 쇼파 앞 탁자에 계약서를 본다.

김씨 할머니 (앉으려다 일어나며) 아녀. 일 봅시다.

나가는 할머니.

복덕방 사장 명호네. 명호네 집일거유.

#15. 향구. 해질녘

덕구,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보고 있다.

덕구 사람들이 좀 모이려면 마당이 좀 넓은 집이 좋겠지.

핸드폰 속. 마당이 넓은 집.

#16. 복덕방 앞. 저녁

복덕방 사장, 문을 잠그고 있다.

덕구 사장님. 벌써 문 닫으세요?

복덕방 사장 어촌이나 농촌이나 해지면 집에나 가야지. 어둔데 밖서 뭐 한데. 그래서
집마다 아들이 많은겨.

덕구 아. 그게 아니라. 집을 좀 봤는데.

복덕방 사장 넌 오셔. 명호이네 잡여. 알아.

덕구 네?

복덕방 사장 집 말이여. 나 배가 곱아서 빨리 가야한게. 넌 봅세. 그럼 일 보시구.

덕구 ?

#17. 복덕방 안. 오전

쇼파에 덕구와 사장이 앉아 있다.

덕구, 핸드폰 들어 사진 보여 주려하면

복덕방 사장 알아. 알아. 명호네. 잡여.

덕구 예?
복덕방 사장 마당 넓은 집. 파란 대문 그게 명호네여. 명호네가 여기 떠난지도 한 3년
 되었지. 집이 많이 낡지는 않아서 큰 공사는 안혀도 될겨.
덕구 아. 네..

복덕방 사장, 탁자 위에 있는 계약서 가르키며.

복덕방 사장 거그 거그다 신상 쓰시고.
덕구 네? (계약서 들어본다)
복덕방 사장 가격은 에누리 없어. 거서 에누리 바라면 도둑놈이지.

계약서 보면 1천만원이 적혀 있다.

덕구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싸네요.
복덕방 사장 싼거지. 맨 땅에서 그렇게 집까지 올렸는데 그 가격이면. 여그선 집에 돈
 드릴 필요가 없어. 똥 값이여. 똥 값.
덕구 네.

덕구, 계약서에 이것저것 적고 있으면.
김씨 할머니가 동네 이장을 데리고 왔다.

덕구 (일어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씨 할머니 잉. 왔구만. 여그 여그 인사혀. 올 마을 이장이여.
이장 명호네집 계약하신다면서유.
덕구 네? 그걸 어떻게?
김씨 할머니 으찌 알긴 어제 여그 들르니까 여그에 계약서가 딱허니 있드만.
덕구 네?
이장 우리 사장님 복덕방에 돛자리 깔려 있슈. 사장님이 다 알지.
덕구 (사장 보고) 아.. 니 어제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사장 허. 이장도 참 내가 알긴 뭘 아려. 그런 말 마려.
이장 알았슈. 근디. 선상님은 서울서 뭐 하셨슈?
덕구 조그만 교회.
김씨 할머니 교회. 그람 장로여?
덕구 아.. 아니요. 조그만 교회 옆에서 가게 조그만 하게 했습니다.
사장 편의점?
덕구 아니요. 그냥 구멍가게요.
이장 아~ 편의점 등살에 못 견뎌 여그로 오신거유?
덕구 아니요. 장사는 그럭저럭 됐습니다. 그냥 서울 살이가 싫고 고향 생각도
 나고.

이장 고향?
 덕구 지금은 육지가 돼서 가바야.
 사장 부안이구만.
 덕구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장 돛자리 깔고 계시다니께유.
 덕구 아...
 김씨 할머니 그람. 여서 배타려구.
 덕구 아직 거기까지는. 우선 좀 쉬면서 생각해 보려구요.
 사장 돈 좀 모았구만. 여유가 있어봐.
 덕구 많이는 아니구요. 동생들도 여기로 오기로 해서 오면 상의 좀 해서 결정
 하려구요.
 김씨 할머니 동상들. 허. 올만에 마을에 젊음이 넘치것구먼. 몇 이나 오는데?
 덕구 2명이요.
 이장 사회 동상이유?
 덕구 아니요. 교회 같이 다니던.
 김씨 할머니 교회. 아이구 장로님이시구만
 덕구 아닙니다. 그냥 맘으로 믿는...
 김씨 할머니 맘이고 뭐고가 뭐이 중헌디. 주님 앞에서면 다 되는겨. 그럼.
 사장 아이구. 누가 권사님 아니랄까바. 그리 반겨유.
 김씨 할머니 근디 올 말엔 교회가 읊어. 읊내까정 가야허. 그게 지랄맞아.
 이장 그러니까유. 마을에 사람 없다고 그 흔한 개척교회두 없다니께유.
 덕구 아.. 네.
 김씨 할머니 그람. 이번 주일에 나하고 한번 가볼겨?
 사장 허. 누님. 교회에 사람델구가면 돈이라도 주남? 뭘 그리.
 김씨 할머니 이놈이! 권사로서 당연히 헐 일이구만. 뭘 지랄이여.
 이장 사장님. 말씀 조심혀유. 하늘서 다 듣고 계셔유.
 사장 알았다 알았어. 나는 교회 안다니남. 지들만 하나님이지. 하나님.

#18. 덕구 집. 저녁

덕구, 방 한가운데 앉아 있고 덕구의 앞에 성경책이 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 중인 덕구.

덕구 주님. 이 마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굶어살피소서. 아멘.

벌러덩 눕는 덕구.

덕구 (천장을 보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그리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제 아지트가 정해졌으니 신도들을 끌어 모아야지.

울리는 덕구의 폰.

덕구 그래. 소희는? 어. 나도 오늘 집 계약하고 들어 왔다. 그래. 그럼 조만간 보자. 그래. (전화 끊고)

눈을 감는 덕구.
암전.

#19. 덕구 집. 새벽

집 문에 달려 있는 십자가.

#20. 향구. 새벽

몇 몇 안 되는 노인들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덕구, 최씨(60대 후반)가 하는 일을 도우려 그물 잡는다.

최씨 뭐여?
덕구 아. 네 어제 이 마을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최씨 명호네.
덕구 네. 어떻게 아셨어요?
최씨 쥐똥 만한 마을엔 먼 일로 왔데?
덕구 아. 귀어
최씨 (말 자르고) 귀어도 좀 큰 마을로 가는 것이지 몇 집 살지도 않는 마을에 귀어는 무슨.
덕구 사람 많은 서울서 살다보니까 너무 복잡해서요. 뭐 사람들 피해서 온거나 마찬가지죠.
최씨 그건 그쪽 사정이구. (덕구가 들고 있던 그물을 낚아 채며) 일 없은게 그 짝 일이나 보슈.
덕구 네? 아. 네 그럼 수고 하세요.

집으로 향하는 덕구.

#21. 덕구 집. 오전

거실에 대자로 누워 있는 덕구.

덕구 허. 너무들 경계하네. 뭐 한것도 없는데. 마을 인심이 야박해. 아주 야박

해.

#22. 복덕방. 오전

사장 너무 야박하다 생각 마슈. 다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규.
덕구 이유요. 뭐 사기라도 당했나요?
사장 아니. 그런게 아니구.
덕구 그럼요?

문 열고 들어오는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정 줬다가 떠나면 누가 멬이 아프것어?
덕구 네?
김씨 할머니 그쪽한티 정 줬다가 그쪽이 다른 사람 멘기로 여그 뜨면 누가 멬이 아프
 것냐고.
덕구 그거야.
사장 그래서 그런겨. 다들. 멬이 아파서.
김씨 할머니 금계. 수도 없이 찾아 가야혀. 그래야 멬을 보여주지.
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거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
 요.
사장 그려? 진짜 여기 눌러 앓을 거여?
덕구 집까지 장만했는데 그래야죠.
김씨 할머니 그려. 당당히. 잉.
덕구 네. 할머니.

#23. 덕구 집. 저녁

덕구,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덕구 하. 두드려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얘기가 쉬운데 아니네. 이거 이러
 다가 봉사상이라도 받겠네.

#22. 덕구 집 방 안. 오전

덕구를 부르는 소리.

민호(E) 형님. 저 왔습니다. 안에 계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덕구 어. 왔어. 문 열렸어.

#23. 덕구 집 거실. 오전

소희 오빠. 이런 조그만 향구. 아니 향구도 아니지. 이런델 뭐라고 하지?
민호 포구 아닌가?
소희 그래. 그래 맞다. 포구서 뭘 한다고? 여기서 무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고 그래.
덕구 넌 시작도 하기 전에 초췌 뿌리지마.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희 오빠. 오빠가 사기 전과만 몇 개야. 전과가 있다는 건 잡혀서 학교에 갔다는 거구. 그런거 보면 오빠는 (자기 머리 가르키며) 이게 안 좋아. 이게.
덕구 (손들어 때리는 시늬를 하고) 이게.
소희 (놀라 머리 감싸며) 아! 왜!
덕구 초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대로만 해. 그럼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만들어 질거야. 아주 아름다운.
민호 그럼 형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덕구 뭘 짓을 하던 노인들 인심을 얻어야 돼.
소희 오빠 그게 되겠어. 오빠가 교회는 다녀 봤어. 그리고 노인네들이 고집이 얼마나 췌데. 오빠 뉴스도 안 봐. 자연에 살겠다고 지방 갔다가 노인네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들 천지야. 천지. 그러지 말고 서울 올라가서 다른 거 작업하자. 응.
덕구 누가 모르냐? 서울 가면 뭐 사기칠게 널렸고, 나 잡아둬쇼 하고 누가 기다려?
민호 형님. 그럼. 조금 큰 마을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여긴 너무 외졌구, 다 노인네들 이잖아요?
덕구 이 집은 어찌고. 내가 갑부냐? 이 동네 저 동네 집 사서 돌아 다니면서 사기치게. 그럴 돈 있으면 내가 사기치겠어? 어!
민호 아. 하긴 그렇네요.
소희 그럼 우리 노가다 뛰는 거야? 배 타면서?
덕구 노가다는 무슨 그냥 노인네들 일 좀 돕는 거지.
소희 그지. 난 노가다 못 해.
덕구 소희 너는 얼굴 화장부터 지워.
소희 왜?
덕구 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장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사기를 치려면 첫째가 페이스이고, 둘째가 패션이야. 아직도 그걸 몰라.
소희 (살짝 짜증) 누가 몰라. 나도 여자야 여자라구.

#24. 항구. 오후

저 멀리에서 어촌 스타일 복장으로 스로우로 걸어오는 덕구, 민호, 소희

CUT.

소희, 화장기 전혀 없는 얼굴로 할머니들 사이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다.

민호, 배에서 생선 박스를 들어 1톤 차로 옮기고 있고,

덕구, 배 갑판을 청소 중이고.

마을 주민들 일을 돕고 있는 덕구, 민호, 소희

#25. 덕구 집 거실. 저녁

소희 (민호 등에 파스 붙여주고 있다) 여기?

민호 아.. 아니 좀 밑으로

소희 (꼭 누르고) 여기?

민호 (아프다) 아! 어.. 어. 거기

소희 (덕구에게) 오빠 이게 뭐야? 내가 지방에서 오토바이타고 커피 배달을 하면 했지! 이거 말하고 다르잖아. 완전 생 노가다 아냐?

덕구 오늘 첫 날이잖아. 첫 술에 배부르겠어. 쫘만 참자. 노인네들 맘 잡으면 바로 교회 열고 고귀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소희 그 전에 죽지 않고 살아 있을까?

덕구 사기는 준비 운동이 90%야. 패를 내 쪽에 유리하게 깔아야 승률이 높지..

민호 형님. 우리 소희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형님이나 우리가 이빨로 살았지 몸으로 일 한적은 없잖아요.

덕구 그러니까. 이젠 몸 좀 쓰면서 일 하자.

소희 싫어. 난 못 해.

방으로 들어가는 소희.

민호 (자리에서 일어나며) 형님 나도 생각 좀 해야겠어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덕구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찍 쉬고 내일 얘기하자.

소희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는 민호.

덕구 쉬운게 없네. 없어. 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26. 소희 방. 저녁

얼굴에 팩 붙이고 누워 있는 소희.
소희 옆에 바삭 붙어 눕는 민호.

소희 왜?
민호 많이 힘들지.
소희 말해 뭐해.
민호 좀 만 참어.
소희 싫어. 우리 올라가자.
민호 어?
소희 (일어나 앉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민호 뭐가?
소희 아니. 잠수함 만드는 종교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호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덕구형님 얘기 듣고 자기도 훌쩍 넘어 갔잖아.
소희 아니. 그거야. (두 손 모으며) 도를 아십니까. 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는지 알았지. 누가 쪼맨한 포구에 와서 생 노가다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 안 그래.
민호 그건 좀 그래. 여기 사는 사람도 몇 없고 다 노인네고. 노인네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소희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 올라가자. 가서 다른 아이টে으로 하자.
민호 근데..
소희 근데, 뭐?
민호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저기 물 난리 나는 건 사실이잖아. 자기도 뉴스 보니까 알잖아.
소희 그.. 그건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민호 그게 종교지.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들이 지금 뭐 해주나? 다 나중에 잘 되게 해 달라고 믿는 거 아냐?
소희 자기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민호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자기 일 하는 건 내가 덕구형님한테 말 잘해서 안 하게 해 볼게.
소희 (활짝 웃으며) 진짜?
민호 응!
소희 (껴 안으며) 아이구 울 남편.

이불 위로 안고 쓰러지는 두 사람.

#27. 덕구 집. 새벽

덕구 힘든 알는 소리를 하며 일어난다.

덕구 이게 장난이 아니네. 여기저기.

창을 보면 비가 내리고 있다.

덕구 어. 비. 야! 여기도 비 오면 일 안하겠지.

다시 눕고. 잠시 있다가 벌떡 일어난다.

덕구 아니지. 확인은 해야지. 비가 오면 일을 하나 안 하나.

#28. 포구. 오전

우산을 쓰고 포구를 향하는 덕구.
주위를 둘러 보면 일 하는 마을 사람들이 없다.

덕구 오케이. 없어. 없다.

뒤 돌아가는 덕구.
덕구를 부르는 소리

최씨 비 오는데 뭘 일이어?
덕구 (돌아 보고) 비오는데 뭘 하세요?
최씨 뭐하긴. 일 하지.
덕구 일어요.
최씨 비 와서 바다 못 간다고 쉬면 어분가? 그물도 다듬고 배도 점검하고 그
 래야 비 안오면 바로 배 띄우는 거.
덕구 아.. 네. 그럼 제가 그물 다듬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최씨 이게 쉬어 보여도 그런 게 아녀.
덕구 아저씨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최씨 그런 게 아니란 게.
덕구 그럼. 저 가요?
최씨 가긴. 나왔으면 일은 혀고 가야지. 저그 싸여 있는 그물 있잖여. 그게
 많이 꼬여 있어. 금게 꼬인 거 좀 풀어 놔.
덕구 네. 그럴께요.
최씨 쉬엄쉬엄 혀.
덕구 네.

그물이 꼬여 있어도 너무 꼬여 있다. 꼬인 그물을 들어 올리니 무겁기도 하다.
무거운 그물을 들어 꼬인 부분을 풀어보는 덕구.

최씨 꼬인걸 푸는게 맘처럼 쉬운게 아녀. 인생도 그러잖여. 꼬이면 인력으로 푸는게 쉽간다. 그런 맘으로 쉬엄쉬엄.

덕구 네.

시간 경과

땀에 흠뻑 젖은 덕구. 덕구 앞에 잘 정리 되어 있는 그물.

최씨 허. 생긴 거하고 다르게 야무지네.

덕구 네. 제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최씨 음.. 뭐랄까. 강 입으로만 먹고 사는...

덕구 제가 좀 귀하게 자라긴 했습니다.

최씨 그런 거 말구.

덕구 네?

최씨 사기꾼.

덕구, 사기꾼이라는 소리에 잠시 긴장.

최씨 농이여. 농. 고생 했은 게. 막걸리나 한 잔 혀.

막걸리를 따라주는 최씨.

덕구 (술 잔 받으며) 네. 감사합니다.

#29. 몽타쥬

- 어느 집의 등을 갈고 있는 덕구 일당.
- 조그만 배에서 비를 맞으며 그물을 올리고 있는 덕구 일당.
- 배 멀미로 축 처져 있는 덕구 일당.

#30. 포구. 오후

기진맥진 힘이 빠진 덕구 일당 배에서 내린다.

소희 난 더는 못해.
민호 저도요. 형님.
덕구 그래. 여기 말고 좀 쉬운 마을 찾아서 다시 시작하자.

지친 몸을 끌고 가는 덕구 일당 옆으로 작은 구르마를 끌고 오는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할 만 한겨?
소희 아뇨.
민호 젊은 저희도 이렇게 힘이 든데 이런 일을 어떻게 매일 하신데요?
김씨 할머니 안 하면 누가 해주건디. 젊어선 자식 키운다고, 나이 먹고 서는 자식한테
 집 되기 싫어서.
소희 정말 대단들 하세요.
김씨 할머니 얼른 씻고 올 집에서 한끼 하자고.
소희 네?
김씨 할머니 먹는데 손가락 몇 개 더 놓지 뭐.
민호 뭐. 주실 건데요?
김씨 할머니 돼지.
소희 고기?
김씨 할머니 잉.
덕구 일당 네. 빨리 씻고 댁으로 갈께요.

인사하고 가는 뛰어가는 덕구 일당.
그들을 보는 김씨 할머니.

#31. 덕구 집. 저녁

씻고 나온 덕구 일당.

소희 얼마 만에 먹는 돼지야.
민호 그러니까. 매일 생선에 풀때기만 먹었더니 멀미나더라.
덕구 좋은 징조야.
민호/소희 ?
덕구 침이잖아. 식사 초대.
민호/소희 오!
덕구 오늘 잘 해보자구.
민호/소희 넵.

#32. 김씨 할머니 집. 저녁

민호, 불을 피우느라 연기에 눈이 맵다.
소희, 마당에서 야채를 씻고 있다.
덕구, 음식을 나르고 있다.
평상에 마을 사람들 5~6명이 앉아 있다.

소희 (야채 씻으며 투덜 거리 듯) 식사 초대가 아니라 식사 대접이구만. 노인네들 뒷 바라지.
덕구 (엉덩이로 소희 툭 치며) 들려.
소희 (적은 목소리로) 들리긴 뭐가 들려. 다 노인네들인데.
사장 밥 준비 하면서 뭘 잡담들이여?
덕구 깨끗이 씻으라고요.
사장 야채는 두고 저쪽 저쪽부터 허야지.

사장이 가르킨 쪽을 보면 민호 눈물 흘리고 있고, 연기만 자욱하다.

덕구 네.

민호를 밀어내고 불을 다시 피우는 덕구.

잠시 후

덕구 일당 평상에 앉아 있고.
최씨가 불을 피우고, 사장이 고기 굽고 있다.

덕구 일당 죄송합니다.
최씨 일 읊어. 젊은 것들이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늙은이들이 일 허쳐 좋겠다. (장작 집어 넣으며) 어이구 어깨야.

고개 숙이는 덕구 일당.
덕구의 등을 때리는 손바닥.

덕구 아!
김씨 할머니 뭐한데. 얼릉 먹지 않고.
덕구 네.
김씨 할머니 각자 잘 하는 거 하는 거. 그쪽들은 먹고. 늙은이들은 일하고.
덕구 죄송해요.
김씨 할머니 일 없어. 강 먹어. 그래야 늙은이들 멍이 편해. 어여. 잉? (허리 피며) 아이구 허리야.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
술도 한 잔 씹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32. 포구. 저녁

적당히 오른 술 기운에 포구에 앉아 있는 덕구 일당.

소희 노인네들이 아프다 아프다면서 할 일 다하고 쪽팔려 죽겠어.
민호 (알통 보여주며) 웨이트하면 뭐해? 일 근력은 따로 있는데.
덕구 몇 일만 더 해보자. 잠수함 만들어야지.
소희 이러다가 잠수함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아냐.
덕구 쓸 때 업는 소리.
민호/소희 네.

#33. 덕구 집 덕구 방/거실. 새벽

술이 좀 과했는지 일어나는 게 힘든 덕구.
거실로 나와 민호와 소희를 깨우는 덕구.

덕구 일어나. 일 가야지.

조용한 민호와 소희

덕구 안 일어나면 문 연다. 하나, 둘, 셋

문을 활짝 여는 덕구.

덕구 (짜증 내며) 아이씨 술 냄새.

민호의 방에 술 병이 널려 있다.

덕구 얼마나 마신 거야?

꼭 끼어 안고 자고 있는 민호와 소희

덕구 그래. 자라 자. 잠수함에 니들 자리는 없다.

문 닫는 덕구.

소희 (잠꼬대) 잠수함을 믿으십니까?
민호 어? 어~~

#34. 포구. 새벽

덕구 힘 없이 포구로 걸어간다. 몇 몇 마을 노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최씨의 배에 올라 보면 최씨가 없다.

덕구 아직 안 왔나? (배에 털썩 주저 앉고) 이거 너무 힘든데. 오늘 백퍼 오
바이트다. 백퍼.

‘우~ 옥’ 급하게 배에서 내리는 덕구.
헛 구역질만 나오고.

덕구 오늘은 쉬어야지 이러다가 잠수함 만들기 전에 죽겠다.

덕구, 가는데 나오고 있는 최씨.
덕구, 까딱 인사만하고 간다.

최씨 가는 거?
덕구 그래야겠어요.
최씨 고작 그거 처마시고 에이구.
덕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하다가 죽을 순 없잖아요.
최씨 그려. 쉬어. 뭘 하기로 맘을 먹었음. 무라도 써러야지.

최씨의 말에 잠시 멈추는 덕구.

최씨 가서 좀 더 자. 오늘은 혼자 할텐게. 담부턴 술 처먹지 말고.
덕구 네. 네. 술 안 처먹겠습니다. 오늘도 뭐 빠지게 일만 하세요.

집으로 가는 덕구.

#35. 덕구 집 거실. 낮

덕구 일당 밥을 먹고 있다.

소희 (힘들다) 아이씨. 밥도 안 먹히네.
민호 좀 먹어. 그래야 살지.

덕구 그러게 뭐 술을 또 처먹냐?
소희 아이씨. 잔소리 좀 그만해.
덕구 이게 잔소리야?
소희 잔소리지. 그럼 뭐야?
민호 자기야. 자기가 어제 좀 과했어.
소희 내가?
민호 그래.
소희 올 만에 입에 술 들어가니 술술 들어가서 그런가?
민호 맞아. 술술 들어가더라.
덕구 술술 들어간다고 그걸 처먹냐?
소희 자꾸 뭘 처먹었다고 그래. 그냥 마신 거지.
덕구 알았다. 알았어.

 숟가락 내려 놓고.

덕구 난 포구 좀 갔다 올테니까. 니들은

 불쌍한 얼굴로 덕구를 보는 민호와 소희.

덕구 쉬어라 쉬어.
민호/소희 네~~~

#36. 포구. 낮

 포구로 걸어오는 덕구.
 최씨의 배가 보인다.

덕구 허. 노인네. 벌써 들어왔네? 하긴 우리가 없으니 힘들었겠지.

 최씨의 배로 오르는 덕구.

덕구 할아버지!

 최씨가 갑판에 쓰러져 있다.

덕구 (최씨를 흔들며) 할아버지! 최씨 할아버지. 어.. 어.

 당황해 어쩔 줄 몰라고, 핸드폰으로 어딘가 전화를 한다.

#37. 덕구 집 거실. 낮

민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는 소희.
핸드폰 올리고.

민호 누군데?
소희 누구긴. 오빠지.
민호 받지마. 일 하러 오라고 전화 한거야.
소희 그지.

#38. 최씨 배 위. 낮

덕구 왜 안 받는거야. 아이씨!

최씨를 업고 뛰기 시작하는 덕구.

#39. 덕구 집 거실. 낮

각자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 민호와 소희.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민호 누구세요?
김씨 할머니 나여. 나.
소희 (문 열며) 왜요? 할머니.
김씨 할머니 빨랑 빨랑 나와.
소희 (짜증 섞인) 그러니까 왜요?
김씨 할머니 최가. 최가가 쓰러졌어.
민호/소희 네?

#40. 병원 응급실. 낮

베드에 누워 있는 최씨.
베드에 엎드려 덕구가 잠들어 있다.
덕구의 머리를 툭툭 치는 손가락.
덕구 잠결에 손을 휘젓고.

소희 (덕구의 귀에 대고) 오빠!

놀라서 일어나는 덕구.

덕구 왜 소릴 지르고 지랄이야.
 소희 여기서 뭐 해?
 덕구 보면 모르겠냐? 간병하잖아.
 소희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고?
 덕구 (민호 보고) 니들은 전화도 안 받고 뭐 했어. 잤냐?
 민호 잔게 아니라.
 덕구 그럼? 야! 큰 일 날뻔 했잖아. 이 노인.
 김씨 할머니 (말 자르며) 으메. 으메. 덕구 총각이 최갈 살렸네. 살렸어.
 덕구 (깜짝 놀라) 할머니. 어긴 어떻게 오셨어요?
 김씨 할머니 이장헌테 들었지.
 덕구 아니 가족도 아니신데
 김씨 할머니 최씨 이 놈 내 동상이여. 아버지 다른.
 덕구 일당 네?
 김씨 할머니 이 놈이 지 자숙들하고 연을 끊어서 내가 보호자여.
 소희 누구하고 같네.
 김씨 할머니 잉?
 소희 아니예요. 그럼 자식들하고 안 보시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 잉.
 덕구 그래도 연락은...
 최씨 넵뉘.
 덕구 (놀라 최씨 보고) 일어 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최씨 괴안은게 말을 허제.
 덕구 왜 쓰러지신거예요?
 김씨 할머니 술이 왜수지 술이 왜수야. 이 놈아. 술 처먹었으며 하루 쉬지 뭇 때돈을
 번다고 배를 타고 지랄이야 지랄이.
 최씨 내가 이정 술 먹으면 개여. 개.
 김씨 할머니 이 놈아. 너가 개된지 십수년이다. 십수년.

웃는 덕구 일당.

#41. 병원 로비. 낮

덕구 이제 된 거 같다.
 민호/소희 ?

#42. 덕구 집 거실. 저녁(과거)

덕구 일당이 앉아 있다.

덕구 마을 노인네들이 우릴 믿기 시작하면 소희 니가 스타트를 끊어.
소희 어떻게?

#43. 병원 로비. 낮

소희 사실 저희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김씨 할머니 잉? 목사님.
소희 예.
김씨 할머니 목사님이 예배 안 보고 왜 여서 배를 탄 거?
민호 (끼어 들며) 월급 목사 아시죠.
김씨 할머니 월급 목사? 그런 것도 있어?
소희 네. 서울은 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김씨 할머니 잉. 그렇구먼.
소희 월급 목사니까 교회 원래 주인 목사님하고 맘이 안 맞으면 같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김씨 할머니 그렇지. 월급 주는 사람이 싫어하면 같이 못 하제.
민호 네. 그래서 잠시 쉬러 내려온 거예요. 저희도 같이.
김씨 할머니 그려.
소희 그래서 말인데요...
김씨 할머니 ?

 최씨를 부축하고 나오는 덕구.
 김씨 할머니, 최씨를 보고 최씨에게 간다.

소희 아이씨!
김씨 할머니 이 개놈아. 이제 좀 괴안냐?
최씨 누구보고 개놈이래.
김씨 할머니 술 처먹은게 개놈이지.

 덕구, 민호 소희에게 눈짓 하면.
 소희, 아니라고 눈 짓한다.

#44. 덕구 집 거실. 저녁

소희 오빠는 왜 그때 나와서 일을 망쳐.
덕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그랬어. 그러게 문자라도 보내지. 그래서 목사
 란 얘기까지만 했다. 이거지.

민호 네.
 덕구 아이씨. 그 노인네 쯤만 더 누워 있자니까.
 소희 이제 어떡해?
 덕구 뭘 어떡해. 방법을 찾아야지.
 민호 그냥. 형님이 내가 여기서 교회 열고 예배 드리고 싶다. 얘기하시면 안되
 요?
 소희 그래.
 덕구 야. 그러다가 싫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한 짓거리는 누가 책임져준데?
 민소/소희 아이씨!

복덕방 사장이 덕구를 부른다.

사장(E) 계신가? 덕구 총각.
 덕구 (일어나 나가며)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들어오는 사장.

사장 시간 있음 나하고 잠시 얘기좀 허제.
 덕구 네? 아네.

#45. 복덕방. 저녁

사장 그게...
 덕구 네. 말씀 하세요.
 사장 덕구 총각. 아니. 목사님께서.
 덕구 네?
 사장 애그 들었슈. 목사님이시라구.
 덕구 아.. 네.
 사장 물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그 내려 오셨다고.
 덕구 아니. 안 좋은 일은 아니고요.
 사장 우덜 마을이 쯤맨해도 다 신도여 읍내 교회.
 덕구 아. 네.
 사장 헌디.
 덕구 네.
 사장 예배 드리러 읍내까정 가는게 쯤메... 여그가 사람이 몇 없으니 차를 안
 보내줘서. 우덜이 모여서 같이들 가거든.
 덕구 그러시군요.
 사장 허서. 우덜이 야금 쯤 해 봤는데.
 덕구 무슨 말씀을...

사장 목사님이 울 마을서 예배 좀 봐줌 안될까? 아니 안될까요?
 덕구 그.. 그게.
 사장 예배는 드려야겄고 교회 멀구. 우덜 좀 봐주.
 덕구 성전을 연다는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서.
 사장 알쥬. 안께로. 이러코롬 부탁드리는거 아니것슈.
 덕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복덕방을 나가는 덕구. 기쁨에 찬 얼굴.

#46. 최씨 배 안. 새벽

덕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말리는 최씨.
 최씨, 민호를 노려 보면.
 민호,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민호 네. 네. 합니다. 해요.

#47. 최씨 배 안. 낮

최씨와 민호 그물을 끌어 올리고 있고, 덕구는 옆에서 어쩔줄 몰라 한다.

최씨 허. 목사님은 강 계서. 우덜이 다 한당께요.
 덕구 아니. 그래도
 민호 기도나 해 주세요 목사님. 고기 많이 잡히라고.
 최씨 그징. 그려야지.

힘들게 일하는 민호와 그런 모습을 편안한 얼굴로 보고 있는 덕구.

#48. 포구. 오후

생선을 다듬고 있는 김씨 할머니와 소희, 할머니 2명.

김씨 할머니 긍계. 새댁이 좀 야금 좀 혀주.
 소희 저야 당연히 할머니 편이지요.
 김씨 할머니 그럼. 우덜은 새댁만 믿고 있을겨. (다른 할머니들에게) 됐어. 된겨.

소희, 미소 짓고.

#49. 덕구 집 거실. 저녁

덕구 일당 술을 마시고 있다.

민호 형님. 한 잔 하시고~~
덕구 (소희에게) 동상도 한 잔 마셔유~~
소희 잠깐.
덕구/민호 ?
소희 (민호 보고) 오빠.
민호 왜? 이제 두드린 문이 열리는데 기쁨의 한 잔~~
소희 아니. 그게 아니라.
덕구 왜 또 뭘 소리해서 분위기 깰려고.
소희 근데 목사가 술 마셔도 돼?
덕구 우리끼리 먹는데 누가 본다고.
소희 그게 아니라. 전에.

긴장하는 덕구와 민호.

#50. 마을 회관. 저녁.

고스톱을 치고 있는 김씨 할머니, 복덕방 사장, 최씨, 이장.

최씨 근디..
김씨 할머니 뭐?
최씨 목사님이 술 먹던가?
사장 형님도 큰 일 날 소릴 하구 그러요.
최씨 먹음 안 되는 거 아녀?
이장 안되죠.
최씨 근디.. 덕구.. 아니 올 목사님 말여?
김씨 할머니 목사님이 뭐?
최씨 전에 술 먹었잖여.
사장 그쥬. 먹었쥬.
최씨 이상헌디?

서로를 바라보며 확인하는.

김씨 할머니 (화투패를 최씨에게 던지며) 우라질. 니는 니는 교회 당김서 왜 술 처 먹
냐?
최씨 누님도. 난 그냥 신도.
김씨 할머니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고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장 드셨쥬.
 김씨 할머니 금계. 우덜이 첨에 열메나 목사님 무시했냐? 안 했냐?
 최씨 금계...
 김씨 할머니 을메나 울하고 친하고 싶음 이기지도 못 하는 술을 드셨것냐?
 사장 그류. 예수님도 드셨고, 우덜도 먹고.
 이장 그렇네유. 하하하.
 김씨 할머니 이제 지랄들 말고, 내가 오늘 새댁한테 씨게 얘기 했은게. 보고들 있더라구.

#60.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정장을 입고 서 있고, 그 앞에 민호, 소희 김씨 할머니, 최씨, 이장, 사장, 마을 사람 3~4명 앉아 있다.

덕구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들 아멘.
 덕구 전 이 마을에 여러분을 뵈러 오기 전에 서울에서 자그마한 교회에 월급을 받는 월급 목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신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며 작지만 알차게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과는 전혀 다른 원로 목사님의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 할머니 그것이 뭐신데유.
 덕구 제가 있던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께 주님을 모셨던 목사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씨 할머니 역시. 우덜 목사님은 지대로여. 안그려요.
 신도들 ‘주여’. ‘아멘’
 덕구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외지에서 온 저희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셨고, 저희에게 이 마을에만 있는 사람 냄새나는 인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들 ‘주여’, ‘주여’
 덕구 그럼. 이제 저희의 작은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와서 처음 느낀 점은 마을 주민들을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주여’, ‘주여’

덕구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곳에 저희들의 작은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는 사람들.

#61. 덕구 집 전경. 오전

찬송가 소리 들리고 카메라 하늘로 천천히 털업.

#62. 덕구 집 앞. 오전

예배를 보고 나오는 마을 주민들.

김씨 할머니 목사님 말씀이 좋구먼.
이장 그러니까유.
최씨 우덜처럼 술을 드셔서 그런가 말씀이 맘에 딱 와닿네.
김씨 할머니 썩을 놈. 술 야근 왜 또하고 지랄이여.
최씨 그만큼 좋다는 거유.
이장 이장 읍내까정 안 가도 된게 좋네유.

각자 집으로 가는 사람들.

#62.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자. 이제 성전은 열었으니 잠수함 팔아봐야지.
소희 근데 오빠?
덕구 또 왜? 쓸 때 없는 소리 할거면 하지마라.
소희 아니. 꼭 짚고 넘어가야해.
덕구 뭔데?
소희 우리까지 10명도 안되는데 천원, 오천원 받어서 언제 잠수함 만들어.
민호 그렇네.
덕구 (답답한 듯) 야. 종교로 사기치는 게 쉬우면 사기꾼들이 다 사이비 종교로 사기치지.
소희 그러니까.
덕구 니들이 아는 큰 교회들도 다 이렇게 시작한 거야. 개척 교회로.
소희 개척 교회?
덕구 그래.
민호 그게 뭐예요. 형님.
덕구 이래서 사길 쳐도 뭘 알고 해야 된다니까. 잔소리들 말고 조용히 내가 하라는 데로만 해. 그럼 물들어 오고, 땅 짚고 헤엄치면 되니까.

#63. 덕구 집.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낮, 밤 교차.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
빠른 편집.

#64. 덕구 집 마당. 오전

덕구 현관문 앞에 서 있고.
마당을 가득 메운 신도들.

덕구 오늘은 창세기 6~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 하시죠.

신도들 ‘알쥬’, ‘아멘’ 등등.

덕구 여러분도 뉴스를 보고 바닷가에 살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날씨가
아주 지랄. 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 ‘그려’,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덕구 맞습니다. 지금 한 성도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저기 저기 위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습니
다. 비가 계속 오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빙하가 녹으면 어찌되는겨?’ ‘알어’ 등등.

소희 비가 계속 오고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늘어나겠죠.

덕구 맞습니다.

이장 그쥬. 그 비가 어디로 가겠어? 넘치지.

덕구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때도 그랬습니다.
몇 날 몇 일을 비가 내리고 빙하가 녹고. 그러면서 육지가 살아지고 다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사람들만이 살아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덜이 방줄’, ‘뭘 소리여’ 등등.

#65.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이제 닳을 내렸으니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아 보자구.

소희 근데 오빠.

덕구 뭘? 또 뭘 쓸 때 없는 소리.

소희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네들 분위기가 좀 그래.

덕구 뭔 분위기.

#66. 덕구 집 마당(회상)

할머니1 (작은 소리로) 아니 우덜이 뭘 노아의 방줄 만들어?
할머니2 금계. 그걸 우덜이 만든다고.
김씨 할머니 목사님이 만들자는 게 아니잖여. 준비 하자는 거여. 준비.

귀를 쫓긋 세우고 얘기를 듣고 있는 소희.

할머니1 예전에 휴거 있었잖여.
할머니2 알지. 한 30년 됐나?
할머니1 그런 거 아녀. 이 교회?
김씨 할머니 조용히들 혀. 목사님 말씀 안 들려.

#67.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그래?
소희 그래. (민호 보고) 자기도 들었잖아.
민호 예. 맞아요. 형님.
덕구 안 돼. 지금 밀어 붙이지 않으면 이번 판 깨져. 밀어 붙여야 돼.

#68. 덕구 집.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낮, 밤 교차.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
빠른 편집.

#69.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서서 멍하니 앞을 보고 있다.
김씨 할머니, 최씨, 이장, 복덕방 사장, 마을 사람 2~3명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70. 덕구 집 전경. 오전

찬송가 소리 들리고, 카메라 털업.
깨끗한 하늘에 서서히 들어오는 먹구름.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 진다.

빠른 편집.

#71. 포구.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흔들리는 배들. 태풍이다.
낮, 밤이 교차 되고.

#72. 자료 화면

태풍이 쓸고 지나간 항구들. 도심들.

#73. 광화문. 밤

광화문 건물 벽 화면에서 나오는 뉴스.

앵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큰데요. 교수님.
교수 네.
앵커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요.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인간인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끊고 사는 수 밖에는 없
 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이라면 저희가 조선시대나 그 이전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교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과학이 발전하고 있니까. 저희 세대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교수 네.
앵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
 는 것은 인간으로 누리고 있는 삶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
 다.

#74. 포구. 낮

태풍에 잔해들이 조금 보이고 이것들을 치우고 있는 마을 주민들.
덕구 일당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장 그나마 다행이여유. 저그 윗 포구에서 사람이 녀씨나 태풍 실종이 되었
 데유.
김씨 할머니 궁계. 이게 뭘 난리겨. 장마철이나 오던 태풍이 뭘 일이라.
소희 (이때다 싶어) 그러니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지구 온난화라서 그런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최씨 힘 없는 우덜이 어찌것어. 태풍 오편 나가덜 말고 집에나 있어야지.
 민호 일본에선 해일이 마을 덮쳐서 아주 썩대밭이 됐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소희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이러다 다 물 속에 잠기겠어요.

#75. 마을 회관. 저녁

모여 있는 마을 사람들(김씨 할머니, 최씨, 이장, 사장, 마을 할머니 3인)
 재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물이 넘쳐 떠 다니는 차들이 보이고.

할머니1 이러다 난리 나는거 아뉴.
 최씨 에이. 관찬여. 우덜 죽기 전엔 별일 없어.
 김씨 할머니 그지. 그러것지.
 이장 그럼.. 우리 자석들이...
 최씨 그간 놈이 어찌 되던 먼 상관이여.
 사장 성님은 그래도 우덜은 아니지.
 김씨 할머니 그징. 우덜은 니놈하고 다르지.
 이장 목사님 말씀이...

동조하는 사람들.

#76. 덕구 집 거실. 저녁

소희 이제 어쩔거야? 장사 좀 되나 했더니 손님 다 떠났잖아.
 덕구 음...
 민호 형님. 이제라도 다른.
 덕구 다 떠난 건 아니잖아. 태풍에 고생들 좀 했으니까 뭔가 변화가 좀 있겠지.
 민호 그렇죠.
 소희 (민호 머리 때리며) 너는 박쥐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니 의견은 없어?
 민호 (버럭 하며) 아이씨. 머리 때리지 말라니까!
 소희 맞을 짓을 하지마. 그럼.
 민호 내가 그래도 니 남편인데.
 덕구 그만들 좀해 니들 아니여도 머리 복잡하다. 복잡해.

#77. 포구. 오후

생선을 다듬고 있는 소희와 김씨 할머니.
할머니2, 김씨 할머니에게 눈짓 하고.

김씨 할머니 (헛 기침) 음. 음. 저그. 새댁
소희 (힘 없이) 네.
김씨 할머니 그 방준가 그거...
소희 갑자기 방주는 왜요?
김씨 할머니 그계. 우덜을 위한건가? 아님 올 아덜을 위한 거여?
소희 그.. 그계 방주는 지금 우리보다는 후세들을 위한것쥬. 그래서 그런 말도 있나?
할머니2 뭘 말.
소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연은 아이들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깨끗이 사용하고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김씨 할머니 그런 야그도 있어?

#78. 복덕방. 오후

민호 네. 방송국 캠페인도 하고 그래요.
이장 그류. 지도 어서 들어본 거 같아유.
최씨 뭘 빌려 쓰고, 뭘 돌려줘. 그 놈들한테 빌려 쓰는 거면 막 쓰고 주지도 말아야지.
사장 성님은 그만 좀 혀요. 성님 아덜하고 사이 안 좋다고 올 아덜까정 그리 되면 안 되쥬. 이장 안 그려?
이장 그쥬.
최씨 난 몰러. 니들이나 알아서들 혀.

나가는 최씨.

사장 하튼 성질 머리하고는. (민호 보고) 그럼 목사님헌티 야그 좀 넣어쥬.
민호 그럼요. 제가 잘 말씀 드려볼께요.
사장/이장 잉. 그려.

#79. 덕구 집 거실. 저녁

덕구 이제 됐다.
소희 노인네들이 태풍 한번 오니까 이제야 뭔가 느낀 거지. 불안하고 무섭고.
덕구 아냐.
민호/소희 ?
덕구 니들 얘기 조합해 보면 애들이야.

민호/소희 애들?
 덕구 그래. 자기 자식들. 노인네들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그런걸 무서워 해.
 자식들 생각해서 그런거야.
 민호 아니에요. 최씨 아저씨 애들 얘기 하니까 아주 지랄이에요.
 덕구 거긴 다르고. 애들하고 얼굴 안 본지 십수년이라잖아.
 민호 그런가?
 덕구 나만 믿어. 그리고 니들은 앞으로.

고개 모으고 뭔가를 얘기하는 덕구 일당.

#80. 최씨 배 안. 새벽

출항 준비에 바쁘다.

최씨 (일하는 덕구를 보고) 저그. 덕.. 아니 목사님.
 덕구 네. 최집사님.
 최씨 그 방준가 그거.
 덕구 아.. 네.
 최씨 그게.. 우덜 때문에 하자는 건가유?
 덕구 갑자기. 왜?
 최씨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덜 때는 홍수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
 같아서유.
 덕구 (역시) 당연하죠. 마을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유.
 최씨 그췌.
 덕구 예. 지금의 저희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
 서 조부모로서 준비를 해 주자는 거죠.
 최씨 잉.
 덕구 근데..
 최씨 ?
 덕구 집사님은 아이들 보신지 오래 되셨다면서요. 내외도 없고.
 최씨 그게..
 덕구 ?
 최씨 아뉴. (선장실로 가며) 어서 가자구유. 오늘도 만선이 되야 혈텐디.

덕구, 좀 의아하다.

최씨, 엔진에 시동을 걸고 핸드폰을 본다.

핸드폰 바탕화면에 최씨의 아들 가족들 사진이 있다.

이때 울리는 문자 음.

문자 보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핸드폰을 덮는 최씨.

#81. 덕구 집 거실. 오전

덕구 정장을 입고 서 있다.
앞에 앉아 있는 신도들.

덕구 네. 이렇게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들 아멘.

#82. 덕구 집 마당. 오전

나가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덕구.

덕구 (인사 하며)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김씨 할머니 (덕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아이구. 목사님 오시구 올 마을에 복이 내린 거 같구만요.
덕구 아닙니다. 제가 복된 마을에 오게 되서 늘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씨 할머니 말씀도 으찌 이리 이쁘게 잘 하시나.
소희 (끼어 들며) 저희 목사님이 원래 좀 예뻐요.
김씨 할머니 그징. 이. 그럼 들어들 가쇼.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덕구 일당.
사람들이 멀어지자. 주먹을 불끈 쥐며 좋아한다.

#83. 덕구 집 전경.

낮. 밤이 교차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빠른 편집.

#84. 덕구 집 마당. 저녁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커다란 비 가림막 속 신도들이 많다.

덕구 이렇게 내리는 비는 우리들에게 동,식물들에게 복된 비입니다. 미세먼지

를 없애주고, 목마른 동물들의 목을 축여주고,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고.
하지만 이 비가 쏟아져 내린다면! 몇 날 몇 일을 쉬지 않고 내린다면 그
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 ‘아멘’, ‘아멘’

덕구 창세기 노아의 방주를 이제 우리들이 준비 해야합니다!

긴장하는 신도들.

덕구 그래야. 지금이 아닌 다음 세대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을
방주에 태워 재앙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며, 목표
입니다. 봉사를 하고, 이웃을 돕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해오던 일입니다. 이것으로 재앙에서 우리 후손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
거워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벌써 그것을 우
리들이 하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신도들 ‘주여’. ‘주여’

덕구 이제 그것을 성도님들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앙에서 우리를 아니 우
리 후손들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하며 뒤 돌며 손을 펼치면.

말린 천이 풀리며.(슬로우)

덕구의 잠수함이 화면에 보여진다.

놀라는 신도들.

‘저게 뭐여?’, ‘배여?’, ‘아녀 잠수함이어’ 등등.

덕구 어떠십니까?

신도들 (놀라서 말이 없다)

덕구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수 십년 배를 타고 생활을 하셨
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겁니다.

신도들 ?

덕구 창세기 노아의 방주는 배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은 배가 아닙니
다.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일까요?

신도들 ?

덕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큰 배도 큰 태풍 앞에서는 종이배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에는 무용지물이고, 암초에 걸리면 바로 침몰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방주 때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도심에 수없이 많은 높은 빌딩들이 있고, 그것이 암초 역할을 해 배에 부딪치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침몰입니다. 보십시오.

자료 화면으로 영화 해운대, 2012 보여진다.

덕구 (2012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화는 헐리웃 재난영화 2012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배인가요? 잠수함 인가요?

신도들 '잠수함이지' 등등.

덕구 여러분 달에 제일 먼저 간 우주선은 미국의 우주선이 아닙니다.

신도들 '그럼 뭐여?'

덕구 바로 헐리웃 영합니다.

신도들 ?.

덕구 영화에서 먼저 달을 구현하고, 그에 충격을 받은 과학자들이 달에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장 맞아유. 미국은 영화로 정치도 한다고 하더라구유.

사장 그러. 미국 영화에는 울 태극기처럼 늘 그 나라 국기가 나온다더라구.

덕구 두 장로님들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저희는 배가 아닌 잠수함을 만들어 재앙에서 우리들의 후손을 지켜 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신도들 뭐시기? 미셔~언?

덕구 숙제. 숙제를 주신 겁니다.

신도들 '아멘'

덕구 저희는 건축 헌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잠수함 헌금을 받아 잠수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은 잠수함만을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잠수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신도들 '주여', '아멘'

덕구 그럼 찬송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5. 덕구 집 전경. 밤

찬송가 소리 울리며.
암전.

#86. 시내 덕구 성전. 오전.

시내 성전 앞에서 서서히 와서 서는 고급 차량.
차가 정차하자 뒷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
내리는 발.
덕구다.
무척이나 스위트하게 정장을 입고 있다.
고개를 들어 성전을 본다.
성전 건물 위에 잠수함이 있고, 잠수함 위에 십자가가 있다.
만족스러운 미소 짓는 덕구.

#87. 덕구 성전 덕구 사무실. 낮.

덕구, 들어오면 민호가 일어나 인사를 한다.

민호 형님 나오셨습니까.
소희 (쇼파에 앉아서)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 목사님. 몰라
 ? 목사님.
민호 형님이 입에 붙어서. 소리.
소희 지겨워. 할 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덕구 조용히 해. 성전 안에서는 과묵하게 있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그리고
 소희 너 말 좀 가려서해. 성녀라고 성녀. 모르겠어?
소희 아! 아니옵니다. 잘 알고 있싸옵니다.
덕구 (짜증 썩인) 장난 치지 말고.
소희 알았어.

#88. 포구. 오전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최씨를 찾아 온 김씨 할머니.

김씨 할머니 뭐혀? 예배당 안갈겨?
최씨 예배당 가면 누가 밥 먹여줘. 일 읊어.
김씨 할머니 이 늙아. 주일은 쉬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거라고 몇 번을 야그혀냐?
최씨 일 읊어. 누이나 가소.
김씨 할머니 저놈의 승질머리 하고는. 또 돈 달라네 보네. 으이그 자식이 웬수지.

#89. 덕구 사무실. 오전

덕구 쇼파에 앉아 있고.
노크 소리 난다.

덕구 (점잔하게) 네. 누구십니까?
김씨 할머니(E) 예. 목사님. 저 김권사유.
덕구 (일어나 문 쪽으로 가서 문 열고) 네. 권사님. 어떤 일 이세요.
김씨 할머니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 인사 드릴려 왔쥬. 이거.

김씨 할머니, 보자기를 덕구 손에 쥐어준다.

덕구 권사님. 매번 죄송하게.
김씨 할머니 뒤유. 하는 김에 덤으로 한규.
덕구 늘 감사합니다. 권사님.

민호, 들어오며.

민호 오셨어요.
김씨 할머니 잉. 우리 집사님.
민호 (덕구에게) 목사님 예배 10분 전입니다.
김씨 할머니 아이구. 늙으면 죽어야 한당게. 눈치도 읊이, 그럼 일 보서요. 목사님.
덕구 네. 권사님. 은혜로운 예배 되실 겁니다.

김씨 할머니, 나가고.

민호 (문 닫히는 거 확인하고) 목사님 이제 포구 늙은이들하고 거릴 좀 뒤야지
않을까요?
덕구 왜?
민호 아니 성전도 시내로 나왔고...
덕구 그건 그렇지.

이야기 하며 김씨 할머니가 갖고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다.

덕구 김치는 할머니께 최고라니까.
소희(E) 목사님! 상스럽게 손으로 음식을 드시고 그러세요. 격에 맞게 하셔야죠.
덕구 알았다.
소희 우리보고 조심하라고 하기 전에 오빠 먼저 조심하라구. 보는 눈이 많아.

할머니의 김치를 보는 덕구.

#90. 유튜브 화면. 오후

유튜버(10대) 저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덕구의 성전을 비추고 꼭대기에 있는 잠수함으로 zoom.

유튜버 저희 교회 대 재앙을 대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로인해 시도 때도 없이 태풍이 오고, 빙하가 녹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도 얘길 하죠. 육지가 물 속에 잠길 수도 있다고. 그걸 대비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91. 몽타주

-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
- 덕구 방주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람들

#92. 보도국 사무실 안. 오후

여기자(30대 후반 여), 덕구의 성전을 소개하는 동영상 보고 있다.

여기자 노아의 방주? 지구 온난화를 준비하자.
남기자 선배. 뭐 봐요?
여기자 이거. 신흥 종교가 탄생 했나 본데.
남기자 신흥 종교? 사이비?

#93. 덕구 시내 성전 앞. 낮

뉴스를 준비 중인 여기자.
신도들 성전에서 나와 여기자들과 실갱이를 한다.

신도1 니들이 뭔데 우리 성전을 찍어? 이거 초상권 침해야. 카메라 치워!
여기자 (카메라를 보호 하며) 이러시지 말고요. 저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러 온 겁니다.
신도2 알 권리? 지랄들 하네. 뭐 권리. 그럼 우린 권리가 없냐? 어서 꺼져.
신도3 됐어. 112에 신고 했으니까. 니들 콩밥 좀 쳐 먹어라.

실갱이 중 112 차량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는 경찰1,2.

경찰1 무슨 일입니까?
신도2 이것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성전을 찍고 지랄이라니까요.
경찰1 (기자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자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하러 온 겁니다.
경찰1 제보가 들어 온 거는 그쪽 문제고요. 이렇게 취재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카메라 치우세요.
여기자 네.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신도들 물러가라! 물러가라!

취재 차량으로 올라 타는 기자들.

#94. 취재 차량 안. 낮

여기자 카메라 온?
카메라 기자 오케이.
여기자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자.
카메라 기자 (카메라 준비하고) 준비 되면 해.
여기자 오케이.
카메라 기자 하나, 둘, 셋
여기자 네. 여기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준비한다는 교리로 신도들을 모으고 있는 일명 덕구의 방주교 앞입니다. 건물 앞에서 진행을 해야 하지만 화면에서 보신대로 신도들의 방해로 이렇게 취재 차량 안에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방주교는 노아의 방주처럼 배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잠수함을 만들어 재앙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이 맞는다면 2009년에 개봉한 헐리웃 영화 ‘2012’가 떠오르는데요. 또한 과거 ‘휴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방주교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이유도 없이 거절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면 저희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저희 ‘뉴스 보도’는 방주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방주교의 민낯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보도’ 여나는 이었습니다.

#95. 덕수 사무실 안. 저녁

뉴스를 보다 티비를 끄는 소희.

소희 저. 저 미친년 아니야? 우리가 뭘 잘 못 했다고. 저 지랄이야.

덕구 됐어. 다 예상 했었잖아.
 민호 아니. 그래도 형님. 뉴스까지 나올 거라고는.
 소희 이 빙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게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못 하게 하자고 했잖아.
 민호 그건. 형님이 나두라고 하셔서.
 소희 오빠! 오빠는 무슨 생각이야?
 덕구 음...

이때 덕구에게 전화가 오고.

소희 모르는 번호면 받지마 오빠.
 덕구 여보세요. 네. 어디시라고요?

#96. 교회 연합회 사무국장 사무실. 낮

연합회 사무국장과 덕구 쇼파에 앉아 있다.

사무국장 오덕구 목사님.
 덕구 네.
 사무국장 참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
 덕구 무슨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당신이 무슨 목사야?
 덕구 제가 목사가 아니라니요?
 사무국장 당신은 세례를 받은 적도 목사 안수를 받은 기록도 그 어디에도 없어.
 덕구 네. 맞습니다.
 사무국장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덕구 목사 안수를 첨 내린 목사가 누구지?
 사무국장 ?
 덕구 질문이 어려운가? 간단히 설명하지.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사무국장 (약간 당황하며) 그.. 그게 무슨 소리?
 덕구 안수를 준 첨 내려준 목사가 누구지 모르시잖아. 첨 안수를 내려준 목사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내가 안수를 받고 안 받고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당신들 기준에는 목사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전에선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난 우리 신도님들을 위해 신도님들의 후손들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일어나 나가며.

덕구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들 기준을 갖다 데지마.

황당해 덕구를 보는 사무국장.

#97. 덕구 사무실. 밤

덕구와 민호, 소희 쇼파에 앉아 있다.

민호 형님. 미쳤어요? 인터뷰를 하시겠다니요?
덕구 그럼. 언제까지 피하고만 있으라고.
소희 아니. 그냥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신도들이 알아서 막아주는
 데. 왜 굳이 나서려구.
덕구 어쩌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어.
민호/소희 ?

#98. 덕구 사무실. 오후

덕구 쇼파에 앉아 있고 소희 옆에 서 있다.
노크 소리 들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서서장(50대 남자)과 형사1.

서서장 이렇게 뵙네요. 목사님. 남부 경찰서 서상곤 서장입니다.
덕구 (일어나 악수하고) 네. 이리 앉으시죠.
서서장 아니. 저희가 웬만 해서는 종교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데, 워낙 메스컴에
 서 시끄럽게 떠드니 저 위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 해서.
덕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뵙자고 연락드린 겁니다.

덕구, 소희에게 눈 짓하면 소희 인사하고 나간다.
서서장과 함께 온 형사1도 따라 나간다.

덕구 이제 좀 편하게 말씀 나누시죠.

#99. 성전 앞 경찰차 안. 오후

차 뒷 자석에 오르는 서장.

서장 종교라는데 다 나름대로들 이유가 있어. 이런 일에 공권력 잘 못 쓰면
 신도들 성화에 못 이긴다니까.
형사1 맞습니다. 서장님.
서장 그만 가자고.

#100. 덕구 성전 앞. 오전

보도국 봉고 성전 앞에 멈춰서고.
여기자, 차에서 내려 덕구 성전을 올려다 본다.
꼭대기에 있는 잠수함.

#101. 덕구 사무실 안. 오전

덕구 다들 왔 있어?
소희 어. 카메라 두 대도 같이 왔어.
민호 이제 어떻게 하실려구요?
덕구 가자.

#102. 성전 회의실 안. 오후

여기자 인터뷰 준비 하면서.

여기자 (카메라 기자에게) 선배 눈 클로즈업! 알지.
카메라 기자 오케이.

시간 경과.

덕구 인터뷰 중이다.

여기자 그럼. 정식 목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덕구 (말 자르며) 기자님. 전 세계 최초의 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자 네?
덕구 누군가 처음으로 기사를 했으니까. 지금의 기자님들이 계신 게 아닐까
요?
여기자 그렇죠.
덕구 기자 자격증 있으시죠?
여기자 네? 아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덕구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하니 묻는 겁니다.
여기자 네. 있죠. 기자협회가 있으니까.
덕구 그렇죠. 협회에 가입하면. 그럼 협회에 가입 못 하고 아니, 안 하고 기자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까요?
여기자 그렇지는 않겠죠.
덕구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
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여기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덕구 기자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여기자 네?
 덕구 그로인해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수 없이 많은 이상기후로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잘 아시구요.
 여기자 네. 그렇죠.
 덕구 그 마지막이 뭡까요?
 여기자 그.. 그거야.
 덕구 수 많은 과학자들이 앞다퉈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 때처럼 온 육지가 바다 속으로 잠긴다고. 맞습니까?
 여기자 네?
 덕구 그걸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후손들을 위해.
 여기자 그럼. 그렇게 큰 잠수함을 진짜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덕구 기자님. 선은 넘지 마시죠.
 여기자 ?
 덕구 노아의 방주가 허구라고 생각 하시는군요.
 여기자 아니. 그게 아니고.
 덕구 노아의 방주를 허구로 생각하는 분과 더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이만 하 겠습니다.
 여기자 (일어나며) 잠시만요.
 덕구 ?
 여기자 제 말씀에 답은 해 주셔야죠.
 덕구 어떤?
 여기자 잠수함을 만들고 계신지.
 덕구 성경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십세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 다. 우리 신도님들 모두 그 구절을 읽으시고 후대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덕구 나가고, 옆에 서 있던 소희도 목례하고 나간다.

여기자 (의자에 털썩 앉으며) 선배. 이거 한 방 먹은 거 같은데.

#103. 보도국 회의실. 저녁

보도팀장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아 오셨어. 잘 하셨어. 아주~~~
 여기자 선배. 선배까지 왜이래.
 보도팀장 아니. 힘들게 인터뷰 했는데 성과가 없잖아. 성과가. 아주 기자님이 한 마디도 못 하시고 아주 잘 하셨어요.

여기자 그래서 나도 미치겠다니까.

머리 쥐어 뜯으며 고개 숙이는 여기자.
뛰어 들어오는 남자 기자.

남기자 선배.

여기자 왜?

남기자 (핸드폰 내 밀며) 이거. (팀장 보고 놀라서) 어. 팀장님.

여기자 줘바. 이게 뭔데.

남기자 (슬슬 빼며) 아니. 그게 아니고.

보도팀장 (남아 채며) 뭔대 그래?

팀장이 핸드폰을 보면 유튜브 영상 타이틀 보이고.
타이틀 - 서울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시는 방주교 오목사님.

보도팀장 이게 뭐야?

#104. 성전 회의실 안 / 관제실 안. 오후

인터뷰 중인 덕구와 여기자를 각각 찍고 있는 카메라 2대.
그들을 찍고 있는 CCTV.
그 화면을 보고 있는 민호.

- 핸드폰 화면 -

덕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여기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덕구 성경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보십세요. 그럼 그 안에 답이 있을 겁니
다. 우리 신도님들 모두 그 구절을 읽으시고 후대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덕구 노아의 방주가 허구라고 생각 하시는군요?

여기자 아니. 그게 아니고.

덕구 노아의 방주를 허구로 생각하는 분과 더 나눌 얘기가 없습니다. 이만 하
겠습니다.

#105. 보도국 회의실. 저녁

보도국장 (여기자 보고) 야! 이제 어쩔 거야?

여기자 아.. 진짜 미치겠다.
보도국장 이거 찍고 있는 거 몰랐어?

 당황하는 여기자의 얼굴.

여기자 이건 악마의 편집이야.
보도국장 방송국기자 생활 평생에 방송국이 악마의 편집 대상이 되는 건 참 본다.
 이제 어쩔 거야!
여기자 아이씨!

#106. 덕구 사무실. 저녁

 동영상 속 댓글을 보고 있는 덕구 일당

- 댓글들 -

 맞는 말이다. 믿음에 협회 가입 하고 안 하고가 뭘 상관임.
 기득권에 있는 것들이란!!! ㅋㅋㅋ등등

소희 됐어. 이 것들 아주 병신 됐어. 오빠!
덕구 이제 몰아 붙여야지. 여론이 우리 편이니까.
민호 넵! 형님. 아니. 목사님!

 이때 민호의 전화 울리고.

민호 네? 어디시라고요?
덕구 왜? 누군데?

#107. 강남의 고급 바. 저녁.

 덕구와 당대표(60대)가 앉아 있다.

당대표 이거.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덕구 아닙니다. 어려운 시국에 국정운영 하시느라 많이 바쁘신 당대표님께서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를 무슨일로.
당대표 여기저기서 목사님에 대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구 아. 네.
당대표 그래서 말씀인데..
덕구 (걸렸구나) 네. 말씀 하시죠.

당대표 잠수함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덕구 역시 대표님도 그게 궁금 하셨군요.
 당대표 저만 그러겠습니까.
 덕구 제가 저 편해지자고 천기누설을 할 수는 없지요.
 당대표 그러시군요.
 덕구 네.
 당대표 그.. 그럼. 혹시 지금 그 잠수함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졌습니까?
 덕구 아.. 아직입니다. 지금 신도분들이 늘고 있어서 잠수함 설계가 자꾸 편경이 되고 있어서.
 당대표 아...
 덕구 대표님.
 당대표 네.
 덕구 아드님이 선박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당대표 아니. 그런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덕구 방주 때문에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당대표 ?
 덕구 아드님을 언제까지 회사원으로 두실 겁니까. 이 참에 회사 하나 차려서 큰 수주 하나 받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덕구 저희 신도가 늘어난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방주 하나로 모자라서..
 당대표 아! 아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덕구 그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대표님 후손도 1등석에 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덕구의 손 꼭 잡으며) 이거. 목사님에 대한 민원이 다 조작된 가짜 뉴스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덕구 아닙니다. 믿음이란 게 각자 다르니 그런거라 생각하며 전 저의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대표 그럼. 목사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목사님의 교리를 더 펼치십시오.

만족한 미소 짓는 덕구.

#108. 덕구 성전 앞. 오전

강남 한 복판에 들어선 덕구의 성전.
 최고급 차량. 성전 앞에 정차 한다.
 뒀 창문이 열리고. 덕구 성전을 올려 보면,
 역시 건물의 꼭대기에는 잠수함이 있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잠수함. 그리고 그 위의 십자가.

#109. 덕구 사무실 앞. 오전

덕구 사무실 앞에 보디가드 두 명이 문 양 옆에 서 있다.
덕구를 보자. 90도로 인사를 하고.
덕구가 사무실로 들어갈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다.

#110. 덕구 사무실 안. 오전

민호, 소희 쇼파에 앉아 있고.
쇼파 옆에 여자 비서가 서 있다.
덕구가 들어오자 일어나 인사하는 민호, 소희, 여비서.
덕구가 쇼파에 앉으면 자리에 앉는 민호, 소희.

덕구 방주 설계 완성이 언제지?
민호 내일입니다.
소희 방주 축하 대 예배는 이번 주일이고요.
덕구 장소가?
민호 장충체육관입니다.
덕구 좀 작지 않나? 신도들 수에 비해.
소희 신도들이 다 참석은 힘들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해외 신도들을 위해 동시 통역을 하고요.
덕구 그래요. 그럼. 문제 없도록 준비들 잘 하시고.
민호/소희 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민호와 소희
둘이 나가자 비서를 쳐다보는 덕구.
비서, 자연스럽게 덕구의 무릎 위에 앉는다.

#111. 장충체육관 전경. 오후

엄청난 인파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다.

#112. 장충체육관 안. 오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체육관.
VIP석에 앉아 있는 당대표와 서장 등등.
소희가 무대 앞으로 나와 예배 준비를 한다.

마이크를 점검하고.

소희 오늘은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동안 목사님이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를 드렸는지
 여기 계신 모든 신도님들은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주여’ 등이 울려 퍼지고.

#113. 체육관 대기실 안. 오후

 두 눈을 감고 쇼파에 앉아 있는 덕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비서.
 덕구, 그런 비서의 손을 잡으며.

덕구 됐어요. 이제 나가 봐야지.

 덕구의 볼에 뽀뽀를 하는 비서.
 미소 짓는 덕구.

#114. 체육관 무대, 오후

소희 그럼. 오덕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함성에 등장하는 덕구.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며 들어선다.
 ‘주여’, ‘주여’ 울려 퍼진다.

덕구 (걸으며) 이렇게 복된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마음에 더 큰 울림으로 다가 옵니다.

‘주여’ ‘주여’ 외치고.

덕구 오늘이 오기까지 전 많은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들과 싸워 왔습니
 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과 조작에서 저를 지켜준 건 바로 이 자리에 있
 는 여러분입니다.

‘주여’. ‘주여’

덕구 (중앙에 서서) 잠시만요.

조용해지는 신도들.

덕구 (미소 짓고) 이거. 이걸 보여드려야 하나? 많이 고민 했습니다.

신도들 ?

덕구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던 그것을 지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는 신도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엄청난 소리.

이를 즐기듯 듣고 있는 덕구.

덕구 자!

덕구의 소리에 조용해지는 신도들.

덕구 (두 팔을 벌리며) 우리의 방주입니다!!!

덕구의 외침에 실내 불이 꺼지고.

덕구 앞에 펼쳐지는 홀로그램.

홀로그램. 설계도에서 시작해 점점 잠수함으로 변해간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함성!!!

완성된 잠수함.

덕구 이 방주에는 1만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주가 계속 만들어져 우리 신도님들 후손들은 다 이 잠수함에 탈 것이고, 재앙에서 여러분의 후손을 지켜 줄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울려 퍼진다.

#115. 대기실. 저녁

덕구, 당대표 그리고 50대의 한 남자가 앉아 있다.

당대표 목사님. 인사 나누시죠.

덕구 ?

당대표 청와대 수석님입니다.

수석 이거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되서 영광입니다.

덕구 국정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수석 아닙니다. 후손들을 위해 늘 기도드리느 분을 뵙게 되서 제가 영광입니
다.
당대표 앞으로 수석님이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수석 제가 무슨 도움은. 그저 목사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저희가 좀 잡아 보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으니 증인 아니겠습니까.
덕구 감사합니다. 수석님.

이때, 노크 소리 들리고 소희가 들어온다.

덕구 무슨 일 이시죠?
소희 신도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덕구 아. 내가 깜박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수석 아닙니다.
덕구 새롭게 등록하신 신도님들 환영 행사가 있는 걸.
수석 아이구. 당연히 가셔야죠.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덕구 네. 그럼.

먼저 일어나 나가는 덕구와 소희.
덕구, 뭔가를 소희에게 이야기 하고.
남아 있던 당대표와 수석.

수석 언제 또 뵙 수 있는 겁니까?
당대표 제가 최대한 빨리 자리하도록 노력할 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수석 아...

#116. 수석의 차 안. 밤

통화하고 있는 수석

수석 나도 알아. 그래도 어떡해. 행사가 있다는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문자로 해.

이때 울리는 문자음.
통화는 계속 되고.

수석 알았다고. 당대표가 다시 자리 잡겠다고 하니까. 그때 꼭 얘기할게.
나도 알아. 알았어.(전화 끊고)

문자 보는 수석.
얼굴이 밝아진다.

- 문자 -

VIP석 탑승을 축하드립니다.

#117. 성전 아방궁 덕구 방. 오전

잠 자리에서 일어나는 덕구.
씻으러 화장실로 가면.
침대에 비서가 자고 있다.

#118. 성전 거실. 오전

가운을 입고 식탁에 앉아 식사 중인 덕구.
양 옆에 민호와 소희 앉아서 같이 식사 중이다.

소희 오빠. 제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덕구 그건 왜?
소희 그러다가 오빠 머리 위에 올라선다니까.
덕구 쓸 때 없는 소리마.
민호 목사님.
덕구 알았어. 알았으니까. 식사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자.
소희 외국에서 계속 연락이 와.
덕구 적당히 하고 넘겨.
소희 어떻게 그래. 고위층에서 연락이 오는데.
덕구 그냥. 적당히 방주에 자리 주겠다고 넘겨.
소희 그게 말이 돼? 그러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그땐 끝이야. 끝.
덕구 뭐가 끝이야.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사기 치고 있는 거야? 어제 방주 설
 계도 보여줬잖아. 그게 대충 만든거야? 수십억이야 수십억.
소희 나도 알지 그 후가 문제잖아.
덕구 뭐가?
소희 실체가 없잖아. 설계도 밖에는.
덕구 설계가 완성이 되어 만들지. 신도들 늘어나서 설계가 변경되는 거잖아.
 그게 팩트야. 팩트.

민호, 눈치 주면.

소희 알았어..
덕구 너는 성녀야. 니 입에서 실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 나오게 하려고 널 성

덕구 몇 번을 얘기해. 저 김치 좀 식탁에 올리지 말라니까.
 민호 형님. 그래도 김씨 할머니 덕에.
 덕구 년 언제까지 그 놈의 포구 애길 할거야?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잖아.
 소희 그래. 오빠. 그만해. 나도 듣기 싫어.
 민호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덕구 그만 하라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덕구.
 눈치 주는 소희.
 기 죽는 민호.

#123. 성전 덕구 사무실. 오후

비서가 당대표와 남자(70대)를 안내한다.

덕구 (쇼파에서 일어나) 대표님 또 무슨 일로.
 당대표 제가 여기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목사님 뵙고 싶다는 분들 모시고 오
 는 거 말고.
 덕구 네.
 당대표 여기는 명동의 권회장님입니다.
 덕구 네. 안녕하십니까.

약수하는 덕구와 권회장.

덕구 앉으시죠.
 당대표 권회장님은 명동에서 제일 큰 손이시고. 목사님은.
 권회장 제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오목사님은.
 덕구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 권회장님이 방주 만드는데 관심이 많으셔서.
 덕구 아. 네.
 권회장 제가 아니고 제 자식들이.
 덕구 그러시겠죠. 저희 방주가 저희를 위한 건 아니니까요.
 권회장 그래서 말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현금을 좀 내고.
 덕구 이번에 해외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5번 방주 설계가 새롭게 들어갑니
 다.
 권회장 그렇습니까.
 덕구 네.
 권회장 그럼. 1등석으로 좀.
 덕구 대표님이 모시고 오셨는데 당연하죠.

권회장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구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권회장 네. 목사님.

 덕구. 미소 짓고.

#124. 보도국 회의실. 오후

 여기자와 남자 박사(60대 남)가 앉아 있다.

여기자 그럼. 방주교에서 보여준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건가
 요?
박사 그렇죠. 이시잖아요.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지.
여기자 그래도 그 보다 더.
박사 그걸 반박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자 아....
박사 다만.
여기자 다만?
박사 지구 상에서 그렇게 큰 배나 잠수함을 만든다면 위성에서 찾을 수는 있
 죠.
여기자 네?
박사 보도국에 계시니까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기자 ?
박사 북한에서 잠수함이 항구에 들어오면 위성 사진에 찍히잖아요.
여기자 아. 맞다. 그럼. 그 위치를 알면 진짜 만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겠네요.
박사 그렇죠. 단.
여기자 단.
박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인공위성이 그렇게 한가한게 아니니까.
여기자 아... 그런 암초가 있었네요. 후..

#125. 아방궁 거실. 밤

 와인을 마시고 있는 덕구 일당.

소희 오빠. 신도들이 자꾸 현장에 가고 싶다고 난리야.
덕구 알아.
민호 성지순례처럼 생각해서 더 문제예요.
덕구 음...
소희 이제 계획대로 가야하는 거 아닐까.

덕구 별써.
 민호 언론도 자꾸 위치를 밝히라고 떠들고 난리 잦아요.
 덕구 음..
 소희 법적으로야 밝힐 이유가 없지만 여론이라는게..
 덕구 좀 고민해 보자. (술 잔을 들고) 레드만 먹었더니 좀 물리네. 여기 화이트로.
 비서(E) 네.

#126. 아방궁 침실. 저녁

덕구, 들어오며.

덕구 섞어 먹었더니 좀 취하네. (침대 옆에 있는 수면제를 먹는다)

침대에 덕구 누우면 옆에 눕는 비서.
 잠드는 덕구.

시간 경과

비서, 잠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난다.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덕구의 엄지 손가락에 액체를 조심스럽게 붓는다.
 손가락 지문 위로 퍼지는 액체 서서히 굳어 가고.
 고무 같이 굳어가는 액체.
 손가락에서 서서히 띄어 내고.
 조심히 금고로 가는 비서.
 띄어낸 고무 조각을 금고의 지문 인식기에 접촉한다.
 ‘삐’ 소리를 내며 열리는 금고.
 미동 없는 덕구.

#127. 성전 지하 주차장. 새벽

비서 서 있는 차에 오른다.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민호.

민호 으이구. 이쁜 것. 성공 했어. 성공.
 비서 믿으라고 했잖아.
 민호 그래. 가자. 우리의 유토피아로.

출발하는 민호의 차.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민호 이거 왜 이래.
비서 오빠 차 등록 안 돼 있어?
민호 말이 돼. 내가 비서실장인데.
비서 그냥 밀고 가자. 응.
민호 그래.

차단기를 밀고 가는 민호의 차.
급 정거 한다.
놀라서 앞을 보고 있는 민호.

민호 에이. 씨발.

소희가 민호의 차를 가로 막고 서 있다.

민호 너라고 내가 못 밀고 갈거 같냐. 죽어.

민호 악셀을 밟으면 순간 범퍼 위로 떨어지는 포크레인 주걱.

민호 아이씨.

#128. 아방궁 거실. 새벽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호와 비서.

소희 니.. 니가 우릴 배신해.
민호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비서를 가르키며) 이년 이년이 날 꼬드겼다니까.
소희 뭐?
비서 아니예요. 저 아니예요. 목사님, 아니 오빠 살려주세요.
덕구 우기가 무슨 조폭이야? 사람을 죽이게.
민호 그쵸.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방주교지 조폭이 아니지요.
덕구 그럼. 그렇지. 난 너힐 죽일 생각은 하나도 없어.

기쁨에 서로를 보는 민호와 비서.

덕구 근데..
민호/비서 ?
덕구 우리 신도들도 그럴까?

민호/비서 목사님!

문이 열리고 수십명의 신도들이 민호와 비서에게 다가간다.

민호/비서 살려주세요.

시간 경과

덕구와 소희가 앉아 있다.

덕구 어떡할거야?

소희 오빠 한 번만 봐죠.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덕구 그러니까. 니가 좀 잘 했어야지.

소희 저 놈이 이런 게 한 두 번이야. 나도 지겹다고.

덕구 왜 저런 놈은 만나가지고. 그리고 애도 그래. 내가 잘 생각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소희 그게 내 맘대로 돼. 어찌다 보니까.

덕구 왜 맘대로 안되.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소희 술이 왜수지. 술이 왜수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뛰어 들어오는 남자 비서.

덕구 ?

남자비서 목사님.

덕구 왜?

남자비서 김춘애 권사님이.

덕구 김씨 할머니가 왜?

남자비서 쓰러지셨습니다.

덕구 뭐?

#129. 병원 1인실. 저녁

김씨 할머니가 누워 있고, 그 옆에 덕구와 소희가 서 있다.

김씨 할머니 죄성해유. 목사님.

덕구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셔야지 왜 청소를 하고 그러세요.

김씨 할머니 지가 목사님헌티 드릴게 노동 밖에 읊잖여유. 돈 많은 사람들이야 헌금
으로 자석들 방주에 태우는데 지는 돈 읊으니..

덕구 아닙니다. 권사님은 저희 개척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김씨 할머니 그제. 나만 그랬나유. 올 포구 사람들 다들 그랬지.

문 열고 들어오는 남자 비서.

남자비서 목사님.

덕구 ?

남자 비서 패드를 덕구에게 보여준다.

덕구, 인상 쓰며 소희를 본다.

소희 ?

#130. 방송국 9시 뉴스 세트 안.

생방송 중이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본 화면에 나오는 분이 방주교 오목사의 여비서였나요?

여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목사는 성착취는 물론이고 성녀로 알려진 여성은 오목사의 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근데 오목사는 오씨 그 여성분은 성이 다른데.

여기자 네.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 다른 동생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럼 방주교가 재앙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만들고 있는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또한 거짓인가요?

여기자 안타깝게도 그 점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건 왜죠?

여기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오목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여기자 방주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목사가 여신도를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내일 오목사의 상착취를 제보한 제보자가 직접 이곳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놀라서) 제보자가 직접이요.

여기자 네. 그리고 증거 영상도요.

앵커 증거 영상까지...

#131. 뉴스 부조. 저녁

피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한 마디 상의 없이. 아이씨. (전화 받고) 네 국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지 혼자서. 네.

#132. 병실 앞. 저녁

통화하고 있는 덕구.

덕구 대표님. 대표님이 이 정도는 막아주셔야. 네. 그렇다니까요. 그냥 비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소희 어떡한데?

덕구 됐어.

덕구, 병실로 들어가고

#133. 병실 안. 저녁

덕구, 김씨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덕구 권사님. 권사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김씨 할머니 그류. 그래야쥬.

#134. 방송국 앞. 오전

‘방주교 음해를 중단하라’, ‘방주교를 지키자’ 등의 풋말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신도들 속에 최씨와 이장, 사장도 보인다.

최씨 니 놈들이 뭘 안다고 지랄이여 지랄이 그 미친년 야그 듣고 울 목사님을 음해 혀냐고!!

이장 이러지 말고 방송국으로 들어가자구유. 가자!!

신도들 막무가네로 방송국으로 들어가고 경비원들과 대치한다. 신도들의 위력에 밀려나는 경비원들 방송국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신도들.

#135. 뉴스데스크 세트장. 오전

세트장 안을 점검한 신도들 경찰들과 대치 중이다.

경찰들 서 있을 뿐 신도들을 끌어내지는 않는다.

#136. 보도 본부장 사무실. 오후

민호와 여기자, 보도 본부장, 경찰 간부가 앉아 있다.

자신과 비서가 찍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민호 이년이 이런 년이라니까요. 지가 무슨 목사님하고.
여기자 아니.. 이게
본부장 뭐야?
여기자 ...
경찰간부 (본부장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나가면 방송사 타격 좀 있을
 거 같은데.
본부장 (민호 보고)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안 내겠습니다.
여기자 본부장님.
본부장 이거 보고도. 그래 우리가 방송 낸다고 하자. 그럼 이 영상이 다른 방송
 사에서 나가면 나가면!
여기자 ...
민호 그럼. 그렇게 알고 저흰 돌아가겠습니다.

#137. 방송국 앞. 오후

쏟아져 나오는 신도들.

#138. 장례식장. 밤

김씨 할머니 영정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덕구와 사람들.
찬송가 부르고.

#139. 장례식 식당. 밤

술을 마시고 있는 덕구.

민호 형님. 여기서 술 드시면 어떡해요.
덕구 한 잔. 한 잔이잖아. 김 권사님 가시는데 한 잔도 못해.
민호 아니.. 그래도.
덕구 그만 가자.

일어나 나가는 덕구와 민호.

#140. 덕구 차 안. 밤

도심을 달리는 덕구의 차.
덕구 창 문을 열고 바람을 맞고 있다.
민호가 운전 중이다.

덕구 민호야.
민호 ? 예. 목사님.
덕구 여기가 끝인 거 같아.
민호 형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덕구 우리가 너무 많이 온 거 같다.

#141. 보도 본부장 방. 오전

덕구와 비서의 성관계 동영상 보고 있는 두 사람.

본부장 이걸 틀렸다고?
여기자 네.
본부장 이거 이제 완전히 맛 갔구만. 너 미쳤어?
여기자 선배. 언제까지 방주골 감쌀거예요. 1등석이라도 받았어요?
본부장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여기자 그거 아니면 이거 틀어야죠.
본부장 야. 무슨 뉴스가 19금이야 남,녀 관계를 뉴스에서 틀게.
여기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오목사 그 놈 못 잡는다니까요.
본부장 넌 왜 오목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여기자 팩트니까. 팩트.

#142. 인천 공항 가는 길. 밤

민호와 소희 택시로 공항 가는 길이다.

민호 아씨! 더 챙길 수 있었는데.
소희 욕심 부리지마 지금 우리가 갖은 거 평생 써도 다 못 써.

말 없는 두 사람.

#143. 포구. 새벽

낚시 채비를 하고 포구를 걷고 있는 덕구.
정박해 있는 조그마한 배에 오른다.

선장 남시 가시게유.
덕구 네.
선장 어디 포인트로 모셔야 허나?
덕구 어디긴요. 고기 많은데쥬.
선장 그류. 그럼 출발 할께유.

출항하는 배.

#144. 배 위. 해뜰녘

동이 트고 배가 달리고 있다.
카메라 배로 줌인 되면.
덕구,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하고 있다.
김치 곁들여 한 입 먹고.

덕구 김씨 할머니 김치는 역시.

카메라 하늘로 털업.

#145. 광화문. 오전

카메라 하늘에서 털 다운으로 내려오면.
광화문 건물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

자막 방주교 오목사 성착취 동영상 보도한 '뉴스 보도' 영상 일파 만파.

#146. 덕구 성전 앞. 오전

성전으로 몰려드는 수 많은 신도들.
이들의 진입을 막는 신도들.
두 집단, 몸 싸움이 일어나고.

THE END